today ganghwa
강화투데이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가는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2023년 9월 18일 제 46 호

강화군, 미래 인재를 위한 제3장학관 개관

대학생 주거 안정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 해소

제3장학관 개관식

제3장학관 개관식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7일 강화군 제 3장학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에는 유천호 강화군수를 비롯해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 약 100명의 입사생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군은 부족한 기숙사 확충을 위해 제3장학관 건립사업을 민선 8기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출범 1년여 만에 제3장학관을 개관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월 13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입사가 가능해 많은 학생·학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어왔지만, 해마다 입사를 원하는 학생에 비해 기숙사가 부족하여 최대 입사 횟수를 2회로 지정하고, 한 가정에는 동시 1명만 입사를 허용하는 등 제한을 두어 추첨을 통해 입사생을 선발해 왔다.

강화군 제3장학관은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에 위치해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환승역인 회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 또한 매우 뛰어나다.

이번 제3장학관 개관을 통해 대학이 밀집해 있는 동대문구 및 강북 지역 소재 대학교에 진학하는 강화군 출신 학생들의 주거 안정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장학관은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총 117실 규모로 2인실로 이용할 경우 30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크기며, 스터디룸·체력단련실·휴게실·간이주방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또한 현재 리모델링 중인 인천 제4장학관까지 개관하게 되면, 강화군은 전국 최초로 4개의 장학관에 300실 이상의 방을 갖추게 된다.

기존 2인 1인실 운영방식에서 1인실 운영을 병행하고, 입사 횟수도 늘어나는 등 입사생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 장학관이 단순한 생활 주거 공간을 넘어 강화군 인재 양성의 산실이자 강화군에 대한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한다”라며 “앞으로도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신념으로 미래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 제1장학관은 유천호 군수가 재임하던 2014년 서울 영등포구에 개관했고, 제2장학관은 2019년 중구 회현동에 추가로 개관한 바 있다.

– 최벽하 기자

today ganghwa 1~9면 ▶ 강화뉴스 • 10면 ▶ 강화인천뉴스 • 11면 ▶ 오피니언 • 12~13면 ▶ 역사문화기행 • 14면 ▶ 훈훈한세상 • 14면 ▶ 건강참살이 • 16면 ▶ 동네가꿈이(광고)

강화군, '조업한계선 상향조정(어장확장)'

교동면 남쪽과 창후항 해역 8.2km 어장 확장...여의도면적 3배

조업한계선 상향조정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60년만에 조업한계선 상향조정으로 어장 확장을 이뤄냈다.

확장되는 어장은 교동면 남쪽 6㎢, 하점면 창후항 인근 2.2㎢로 약 8.2㎢정도가 확장되는 셈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한다.

강화도 바다는 임진강, 예성강, 한강 등 내륙에서 유입되는 영양염류로 젓새우, 장어, 숭어, 점농어, 꽃게 등 풍요로운 어장을 자랑하는 황금어장이다. 그러나, 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은 조업한계선을 넘은 위치에 있어 지역 어민들은 출항과 동시에 조업한계선을 넘을 수 밖에 없었다.

조업한계선을 넘으면 군부대나 해경에서 어민들에게 출항을 하지 못하도록 즉시 연락하여 어민들은 사정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출항을 할 수 있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어민들의 불편과 오랜 기간 갯벌 퇴적 등 지형변화로 축소된 어장을 해결하기 위해 강화군은 그간 해양수산부에 수년간 방문하고 국방부, 해경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지속 협의해 왔다.

지난 해 10월에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채택한 조업한계선 조정(어장확장) 강화군 건의문을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에 전달했다.

지난 5월에는 어업규제 완화를 위한 강화군 어업인 약 300명이 서명한 연명부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하였고, 최종 의견 조율을 위한 3차례 관계기관 실무간담회 회의 결과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장확장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교동어장 6㎢, 창후어장(2.2㎢) 각각 신설(확장)되고, 여전히 조업한계선 밖에 있는 죽산포항, 서검항은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어업을 목적으로 입출항 하는 경우 입출항이 제한이 없어진다.

한편, 국방부는 경계 지역 확대에 따른 안보상 이유로 어업지도선 배치, 계류시설 조성 등을 요청했고, 강화군에서는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사업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어장확장은 강화군 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민선 8기 공약사항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어장확장으로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민들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 밝혔다.

강화군, 인천시와'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 행사 개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일 교동면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발전을 위한 마을 통합회의 '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는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등 각종 지역단체와 주민들이 인천시와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강화군에서는 처음으로 교동면에서 개최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인천시 주요 정책 설명을 시작으로 마을의제 논의, 주민 건의사항 청취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황교익 회의대표(교동면 이장단장)는 인천시에 공공하수도 복개를 통한 도로 폭 확대, 대룡시장 주차장 정비 및 조성, 교동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등 현안사업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오늘만큼은 교동면민으로 회의에 임했다"며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강화를 더 자주 찾아 군민들의 애로를 살피고, 강화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이태산 강화군 부군수는 "시장님께서 농어민 공익수당 시비 지원 확대를 결정해 주신 것에 강화군 농어민들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태산 강화군 부군수는 대룡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접 떡, 과일 등의 물품을 구입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 최벽하 기자

'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 교동면 주민통합회의

'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 교동면 주민통합회의

강화군, 추석 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오는 27일까지, 농산물 및 가공품 품목 집중 단속

원산지 현장점검

원산지 현장점검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27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강화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강화사무소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풍물시장 등 농산물 판매장을 찾아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원산지 미표시 등이며, 농산물 222개 품목, 농산물 가공품 268개 품목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단속 결과 위반자 적발 시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로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하고,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요령 및 현장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2022년 자살예방사업 실적 평가, 인천시 10개 군·구중 1위 선정

자살예방 교육

자살예방 심리검사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난 9일 '2022년 자살예방사업 실적 평가'에서 인천시 10개 군·구 중 1위에 선정돼 인천 시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 위험군 등록관리,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으로 범 사회적 자살예방 환경 조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았다.

군은 매년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스트레스, 우울 선별검사 ▲자살위험 환경개선 사업 ▲자살관련 사회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자체의 적극개입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생명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으면 ☎032-932-4093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https://ghmhc.or.kr)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의회, 제288회 임시회 개회

제288회 임시회 개회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는 4일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는 9월 15일까지 12일간「현지의정활동」을 비롯해「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원 발의 안을 포함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일정은 4일 제1차 본 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날 실시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6일부터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12일에는 강화군 주요 현안사업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현지 의정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방문 대상은 강후초등학교 천문과학관 등 2개소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제3차 본 회의를 열어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12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박승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여름 간 공직자 및 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한편으로 “다가오는 추석에는 모든 군민들이 가까운 이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화군의회, 역사문화관광 콘텐츠개발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진행

강화군의회 용역 중간보고회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 의원연구단체인 ‘역사문화관광 콘텐츠개발 연구회’는 지난 6일 강화군의회 2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박흥열 연구회 대표의원을 비롯해 오현식 의원,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강화 돈대를 활용한 ‘강화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의 개요와 진행 현황 ▲앞으로의 연구 방향 및 보완, 개선점 등을 토론했다.

황평우 소장은 "강화 돈대의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을 통하여 돈대뿐만이 아닌 강화의 여러 자연, 역사 유적들을 여행 활성화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박흥열 대표의원은 "이번 중간보고회로 연구용역 진척 상황을 점검할 수 있었으며, 이미 상당한 수준의 연구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 내용을 더욱 보완하여 추후 강화군의 정책사업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역사문화관광 콘텐츠개발 연구회’는 지난 6월에 발대식을 갖고 강화 돈대를 활용한 ‘강화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활동하고 있다.

- 최벽하 기자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 '생명사랑 영화제'

강화군, 2023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7일 강화작은영화관에서 2023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생명사랑 영화제'를 개최했다.

오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해 '당신의 이웃, 안녕하세요?'라는 주제로 1, 2부로 나누어 행사를 진행했다.

1부에는 자살예방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아동·청소년 생명사랑 생명존중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2부에서는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오베라는 남자'를 원작으로 한 '오토라는 남자'를 상영했으며, 자살을 선택한 주인공에게 뜻하지 않은 이웃이 찾아오며 예상 밖의 인생을 살아가는 줄거리를 갖고 있다. 또한 영화평론가 심영섭 교수와 함께하는 힐링 토크를 시간을 가졌다.

영화제에 참여한 주민은 "영화를 통해 우울과 자살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며, 주변 이웃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유익한 시간이되었다"고 말했다.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032-932-4093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https://ghmhc.or.kr)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0월 31일까지 의료기관·마약류 취급업자 대상 점검

강화군, 마약류 오·남용 우려 속 철저한 점검 예정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31일까지 의료기관 60개소 마약류 취급업자 35개소 등 총 9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의약 관리 담당 외 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등 관련법 준수 여부 △마약류 취급사항 보고 의무 준수 여부 △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여부 △ 마약류 처방전의 보관·관리 적정성 여부 등이다.

특히 최근 국내 마약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유통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의료용 마약류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 사용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으로 위반 정도가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 법에 따른 행정 처분 또는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유천호 군수는 "의료기관 및 마약류 취급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군민들에게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강화 관내 초·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

인천강화교육지원청, 자연과 함께 읽·걷·쓰 '강화 생물다양성 탐사' 성료

생물다양성 탐사 사진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은 9월 2일(토) 강화 관내 초등학교 가족과 중학교 교사·학생 총 40여 명을 대상으로 강화 나들길 7코스와 장화리 갯벌에서 강화도의 생물다양성을 탐사하였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이 사전에 한 달여 동안 밴드 앱을 통해 생태환경과 관련된 책들을 읽고, 리뷰를 작성하여 책 속의 지식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공유하였다.

실제 야외 탐사 활동에서는 '식물', '곤충', '갯벌 생물' 3가지 주제로 초, 중학교 팀으로 각각 나누어 강화도에 현재 서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물 종들을 채집하여 관찰하였다.

특히 강화갯벌센터에서 팀별로 채집한 생물들을 분류하며 탐구 결과를 정리 및 발표하였다. 초등학생들은 가족과 함께, 중학생은 학교 동아리 차원에서 자연 속에서 함께 걸으며 탐사 체험을 하였다.

초등학생 가족의 한 학부모님은 "갯벌에서 생물을 직접 보고, 아이들과 함께 강화의 생물다양성을 알아보는 탐사 활동이 매우 유익했다."며 "특히 갯벌에서 직접 강사님과 함께 잡은 작은 생물들을 실체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여 특징을 이해하는 과정이 인상 깊었고, 아이들과 함께 갯벌을 체험하는 기회가 또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화의 생물다양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아이들과 부모님, 선생님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고장의 다양한 생물 종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시민 모두의 생태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등사, 제18회 이주민 문화축제 성료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주지 여암스님)는 지난 10일 경내 특설무대 일원에서 10개국 이주민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이주민 문화축제 아시아는 친구'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강화국악예술단의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처음으로 강화 글로벌 세프고등학교와 함께 '화합의 비빔밥 만들기' 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동국대 일산병원과 경찰병원 봉사단이 무료 양·한방진료를 진행하는 부스가 마련돼 이주민들의 건강을 돌봤다. 이외에도 ▲동방대학원대학 원우회 '위락치유' ▲사랑의 약손봉사단 '발 마사지' ▲강화다문화센터 가족봉사단 '한국 전통 의상 체험' ▲강화로 닷컴의 '한국 전통 혼례복 체험' 등 다양한 체험 부스들이 마련됐다.

전등사 주지 여암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선종에는 '세계일화(世界一花)'라는 선어(禪語)가 있다. '세계는 하나'라는 의미인데, 자비로운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꽃과 꽃이 어우러진 하나의 꽃밭과 같다"라며 "오늘 열리는 행사가 아시아인들이 하나의 꽃밭으로 피어나는 축제"라고 말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를 대신해 참석한 이태산 강화부군수는 축사에서 "내년 축제에는 강화군에서 공동 주최 또는 공동 개최 단체로 참여하겠다. 전등사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축제 규모 확대를 약속했다.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장은 축사에서 "이주민들이 자신의 문화를 한국에 알리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며 한국사회의 빠른 정착 돕는 의미가 담겼다"며 "전등사는 이주민 문화축제 뿐만 아니라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 등 지역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고 있다. 전등사의 노력에 강화군민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전등사는 '인연지기'라는 단체를 창립해 한국으로 이주해 노동자로 살며 결혼하게 된 이주민 커플들에게 무료 결혼식을 열어주며, 한국의 정착을 돕고 있다. '인연지기'는 이주민 문화축제의 주관단체로도 활동하고 있다.

- 최벽하 기자

비빔밥 퍼포먼스

이주민 커플 전통혼례체험

강화군, '고인돌 선사체험' 재개
9월 2일 ~ 10월 1일 매주 주말·공휴일 운영

고인돌 선사문화체험

강화군(군수 유천호)는 2일부터 고인돌광장에서 '고인돌 선사체험'을 운영한다.

'고인돌 선사체험'은 강화군이 문화재청에 실시한 '2023년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10월 1일까지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선사시대 생활을 스토리와 함께 간접체험을 경험하게 해주는 '고인돌과 마고할멈(고인돌 탐방대)'와 7톤의 모형 고인돌을 단체로 끌어보는 고인돌 축조 체험, 세계유산 가이드북 오침법 제본이 있다.

이 외에도 ▲미꾸라지를 맨손으로 잡는 체험인 선사 어로체험(수시) ▲고인돌을 배경으로 사진을 즉석에서 무료로 출력해주는 '고인돌 온라인 사진관' ▲모형 돌도끼 만들기, 미니 움집 만들기 등 3천년 전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가족과 함께 체험을 통한 교육과 즐거움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다.

예약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카페 '강화고인돌' 또는 '우리문화재보호회'(대표: 윤용완)로 문의하면 된다.

하반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재개

DMZ 평화의길 프로그램 진행

DMZ 평화의길 프로그램 진행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하반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강화 코스'는 갑곶돈대(강화전쟁박물관)에서 시작해 6.25참전용사기념공원, 강화평화전망대, 의두분초를 거쳐 대룡시장, 화개정원을 방문한다.

올해는 화개정원을 코스에 추가해 새로운 관광지를 홍보하고,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11월까지 매주 목, 금, 토, 일에 걸쳐 주 4회 운영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으로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DMZ 평화의 길'누리집(www.dmzwalk.com)에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을 통해 강화 북부지역의 관광자원이 널리 알려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하반기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함께 만들어요! 양성평등, 행복동행 강화군!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 '2023년 강화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주간 행사

양성평등주간 행사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미경)는 5일 강화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해 '2023년 강화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양성평등주간(9.1.~ 9.7.)은 남성과 여성이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의 실천을 통한 실질적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주간이다.**

이날 행사는 남녀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화합을 다지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여성단체 회원들과 강화군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 1부에서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현장에서 역할을 해온 유공자 표창과 축사 등이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드림뮤지컬 공연팀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신나는 노래를 곁들인 '양성이 평등한 뮤지컬 갈라쇼'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이호선 교수의 특강이 이어졌다.

특히 이호선 교수의 특강에서는 '시대와 세대, 성별을 넘어 소통 잘하는 기술(가족역사로 쓰는 평등이야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어른과 선배, 부모의 가치의 의미'와 '관찰학습의 중요성', '존중하고 질문하는 습관' 등을 강조하며 성 평등을 명쾌하고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많은 청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미경 강화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양성평등 문화가 더 크게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여성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헌신하신 수상자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이 자리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성별과 세대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노력한다면 남녀가 조화로운 강화군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3년 강화군 왕골공예품 전시회 개최

강화군, 왕골공예품 만나러 화문석문화관으로 오시겨!

왕골공예품 수작작 우수(맹호)

왕골공예품 수장작 최우수(꼽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강화 화문석문화관에서 '2023년 강화군 왕골공예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금년도 경진대회 입상작과 인천시 공예품 대전 입상작, 코로나19로 인해 선보이지 못했던 전년도 경진대회 입상작도 함께 전시된다.

첫날인 14일에는 '제34회 강화군 왕골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포함한 개회식을 진행한다.

아울러, 완초전통보존회 회원의 작품, 국가무형문화재 완초장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의 작품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올해로 34번째를 맞이하는 왕골공예품 경진대회 및 전시회는 강화군 특산품인 왕골공예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공예품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에도 작품을 만드는데 매진하는 공예인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면서 "전통공예산업인 왕골공예의 맥을 잇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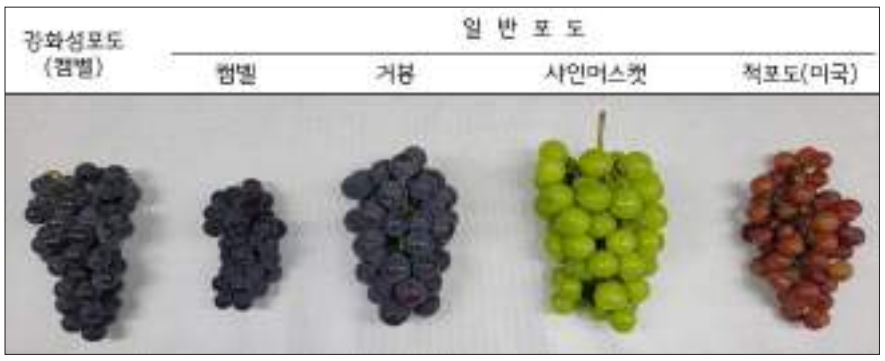
보건환경연구원, 강화포도 우수성 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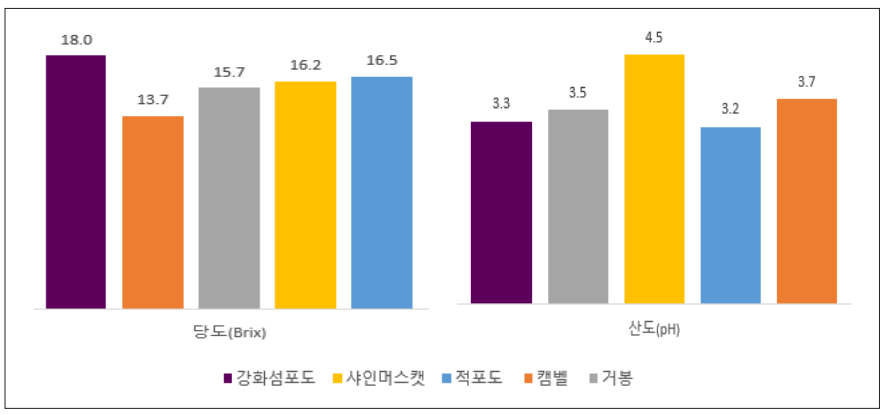
강화섬포도, 더 달고(Brix 18.0) 더 새콤(pH 3.3)하다

항암·항염·항노화 기능 있는 레스베라트롤 함량도 타 품종에 비해 높아

강화섬포도가 타 품종 포도에 비해 더 달고 새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강화섬포도의 기능성 성분에 관한 연구'결과 강화섬포도는 타 품종 포도에 비해 당도가 높고 산도는 낮아 새콤달콤한 맛의 특징을 가지며, 항암·항염·항노화 기능 있는 레스베라트롤 함량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화섬포도(캠벨얼리 종)는 밤낮의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적 특성으로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다. 해풍을 맞고 성숙해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해 신선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맛과 향기가 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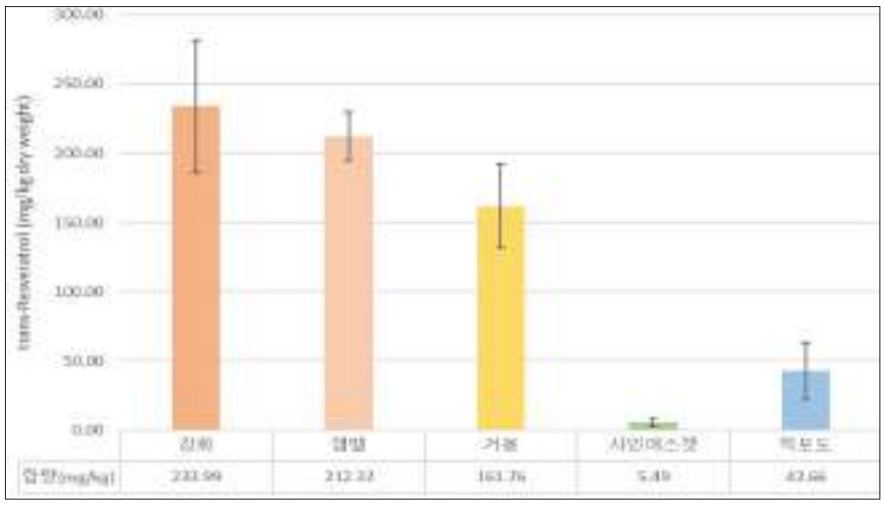
천혜의 자연환경에 비가림재배와 잡초를 나지 않게 하는 부직포 설치 등 뛰어난 재배 기술이 더해져 만들어 낸 최고 품질의 포도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천시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강화섬포도의 기능성 성분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강화포도	캠벨	거봉	샤인머스캣	적포도
당도 (Brix)	18.0±0.81	13.7±1.35	15.7±1.75	16.2±0.69	16.5±2.69
산도 (pH)	3.3±0.14	3.7±0.11	3.5±0.23	4.3±0.25	3.2±0.08

▲ 포도 품종에 따른 당도 및 산도 차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봉포도와 샤인머스캣, 적포도, 켐벨포도를 비교군으로 올해 8월 중 수확된 강화섬포도의 당도와 산도, 레스베라트롤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당도는 타 품종에 비해 1.5~4.3Brix 높게 산도는 0.2~1.0pH 낮게 나타났다. 산도 수치가 낮을수록 새콤한 맛이 난다.



▲ 포도 품종에 따른 레스베라트롤(trans-Resveratrol)의 함량차이
(*사용장비 : LC(ThermoFisher Vanquish Flex, 2022))

레스베라트롤 함유량도 다른 품종의 포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레스베라트롤은 포도에 있는 주요 페놀화합물로 항암·항염·항노화 기능이 있으며, 당분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도 1㎏당 강화섬포도의 레스베라트롤 함유량은 233.99㎎으로 일반캠벨포도(212.32㎎)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거봉포도(161.76㎎)보다는 약 1.4배, 적포도(42.66㎎)보다 약 5.5배, 샤인머스캣(5.49㎎)보다는 약 42.6배나 높다.

강화섬포도의 우수성을 확인한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강화섬포도 제품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기능성을 강화한 차 제품 개발을 목표로 레스베라트롤 함량을 높이는 기술과 관련 특허출원도 계획하고 있다.

재배면적은 120㏊로, 약 300여 농가가 포도 농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총 생산량과 생산액은 각각 1,957톤, 94억 7,500만 원을 기록했다.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맞은 강화섬포도는 9월 말 추석 전까지 강화 주요 도로변과 포도밭 인근 직거래 판매장 등 현장에서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 있다.(자료제공 –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최벽하 기자

전문가·소비자로 구성된 심사단이 품질 및 위생·안전 평가 거쳐 선정

‘강화섬 순무김치’, 대한민국 김치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강화섬 순무김치

강화섬 순무김치

인천 ‘강화섬김치’(업체명)의 ‘강화섬 순무김치’(제품명)가 제12회 대한민국 김치 품평회에서 최우수 김치로 선정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2회 대한민국 김치 품평회’에서 인천시 6차산업 인증업체인 ‘강화섬김치’의 제품 ‘강화섬 순무김치’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2회차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전국 총 29개 업체가 참여했고, 김치 전문가(10명), 소비자(30명)로 구성된 심사단이 품질 및 위생·안전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24점이 진출했고, 1차로 품질, 농업연계, 소비자접근성 등 서류평가를 통해 16점이 선발됐다. 이후 2차 위생부문 현장평가에서 최종 8점이 선발됐다.

최종 대상 1, 최우수상 1, 우수상 3, 장려상 3 등 총 8점이 수상했는데, 그중 인천의 ‘강화섬 순무김치’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최우수상 수상업체에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5백만 원이 수여되며, 제품은 유명 온라인 마켓 입점 및 할인기획전, TV 홈쇼핑 출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강화섬 순무김치’는 강화도의 특산품인 순무를 사용해 특유의 알싸한 맛이 있는 인천 대표 향토식품이다. 토질과 해풍의 영향으로 강화 순무의 잎과 뿌리에는 무기질과 비타민 등이 다량 함유돼 있어 항산화 및 해독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회 인천시 농축산과장은 “인천의 대표 농특산물인“강화섬 순무김치”가 전국 대회인 대한민국 김치 품평회에 좋은 성과를 거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식을 대표하는 우리 김치의 품질을 더욱 높여 국내 소비는 물론 수출활성화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을철 떠나기 좋은 국내 섬 5곳 중 1곳으로 선정

강화군, 교동도 ‘찾아가고 싶은 가을섬’에 선정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교동’이 지난 12일「찾아가고 싶은 가을 섬」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동은 ‘평화와 치유의 섬 교동도’라는 테마로, 경기도 안산의 대부도, 전남 여수의 금오도, 경남 남해의 조도·호도, 제주도의 추자도와 함께 가을에 떠나기 좋은 국내 섬 5곳 중 1곳으로 선정됐다.

교동도를 찾는 방문객은 관광뿐만 아니라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문화 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는 한국섬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하고 있다.

가을 섬에 선정된 5곳에 대한 여행 정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이번 찾아가고 싶은 가을섬‘ 선정을 기회로 많은 방문객들에게 수도권 최고의 휴식공간인 화개정원과 교동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으로 강화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투데이 사설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국가와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대다수 그 목적으로 국민의 행복이라 답할 것은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일 것이다. 상식적이고 기본적이란 것은 누구라도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현시점, 대다수의 답변자에게 다시 한 번 물어보자. "우리나라의 정치는 '국민의 행복'이란 보편적인 목적에 근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 라고 말이다.

국민의 입장과 다양한 의견을 다각도에서 바라보며 수렴하고 그 대표로서 논의와 토론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더 많은 국민의 행복을 지향하여 나아가는 것, 아주 단순명료하고 뚜렷한 목적임에도 기본과 본분을 잊고 여야가 마치 선과 악의 대결인듯 물고 뜯고 할퀴는 행태를 보이며 국민을 하나가 아닌 대립의 양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지금의 정치판이다. 한마디로 현 정치꾼들에게는 국가와 국민이 없고 나아가 미래 또한 보이지 않는 다.

정말이지. 정치판이 너무나 시끄럽다. 아니, 더 나은 길을 향하기 위한 시끄러움은 당연히 환영해야할 일이겠지만, 지금 우리의 정치판은 여야가 협조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상대의 약점만 잡으려고 싸우는 현 정치가 과연 국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한 말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코미디가 따로 없을 지경이다. 서로의 약점을 꼬투리삼아 끌어내림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려하는 모습의 어느 한 구석조차 국민의 신뢰를 얻고 존경할 만한 모습이 있을까 싶다.

늘 중립적인 모습으로 국민에게 편향되지않는 소식을 전달하여야 할 언론에까지 압박하고 조작하려는 모습은 경악을 금치 못할 모습이다. 언론에 영향력을 가하려는 것은 결국,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할 권리를 빼앗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이에 각 언론사는 타 세력과 결탁해서는 안될 것이며 국민의 편에 서서 같이 분개하되 절대 중립의 입장에서 호도되지않는 기사를 써야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치인, 언론인이기전에 한 사람의 국민이란 점을 간과하지 말 것이며,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빠르게 늘어만가는 온라인상의 거짓정보에 현혹되지 않는 주관을 가져야 한다. 그러지않는다면, 혹세무민하며 국민들의 정신을 오염시켜 거짓으로 양상되는 몰지각한 정치꾼들의 정보들에 휘둘려 서로를 물고뜯는 데 온 정신이 팔려 자신의 권리를 망각하게되는 희생양의 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정치가 바로서야 국민이 바로 선다는 수동적인 패턴을 벗어던지고 국민이 바로 섬으로써 나라를 위하는 옳은 정치를 인도해야한다는 주권의식을 장착하여야할 것이다. 마치 남의 일 인양 손을 놓고 있는다면, 그것은 부메랑 효과(Boomerang effect)로 자신의 목을 옭메는 박탈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편이 되어서는 안된다. 좌파와 우파, 지역색으로 갈라치기하는 선동에 물들어 어느 한 편의 수족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서두에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요, 한 나라의 국민임을 잊지않고 최종 목적지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행동과 의식을 같이 해나가야겠다. 국민의식이 높아지면 정치는 흙탕물을 걷어내고 투명한 정치를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게 된다. 국민 모두가 똑바로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다음은 온라인상 이곳저곳에 게재되어있는 〈주전자와 물병이 주는 교훈〉이란 글이다.

자기 걸 주면서도 몸을 숙이는 주전자며 물병은 가진 걸 다 줄 때까지 몸을 숙이고 또 숙인다.

한 세상 살다 보면 하찮아 보이는 것에서도 삶의 교훈을 얻는 경우가 참 많다. 글쓴이는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주전자와 물병에서 귀한 작품을 얻었다. 자기 안의 물을 남에게 주기 위해서는 몸을 숙여야 하는 주전자와 물병을 노래한다.

곧 낮은 자세다. 자기 몸을 숙여야만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 꼿꼿한 자세로는 줄 수 없다는 것.

'겸손'의 의미를 누구라도 알 수 있게 풀어놓았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다. 4년마다 있는 단체장 선거에서 매번 떨어지는 후보가 있었다. 잘 생긴 얼굴에 높은 학력, 언변까지 뛰어난 그였지만 어쩐 일인지 매번 낙선의 고배를 맛봐야 했다.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억울하다며 솔직한 말을 원했다. 그때 한 친구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자넨 인사를 뒤로 받잖아!". 거만함이 그의 패배 원인이었던 것이다. 잘 생긴 얼굴, 높은 학력, 뛰어난 언변도 겸손만 못했다는 얘기다.

주전자와 물병은 가진 걸 다 줄 때까지 몸을 숙이고 또 숙인다. 주전자와 물병을 다시 봐야겠다.

저 하찮아 보이는 물건이 그 어느 교과서나 강의보다도 커다란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은가!!(옮긴 글)

정치인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투표를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받아 서 있는 자리기에 더욱 자신을 낮춰 열정적으로 뛰어야하는 자리다. 국민의 마음을 받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뤄낸 자리기에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이 대표로 뽑은 자리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과 언론은 사실을 방치하고 편파보도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선동꾼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 정보의 전달을 통해 대중의 시선과 인식은 물론, 정치와 경제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자각하고 항상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공정하게 보도하여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통해 전달하여야할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기본과 본분을 잊지않고 그 자리에 선 이유를 되새김질하여 그 의무와 책무에 책임을 다할 것, 그리하여 국민의 행복을 위한 목적에 근접하기 위한 시대의 한 축이 되어달라는 것이다.

기본을 잊은 사람에게, 또한 정치인에게, 언론인에게, 그리고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가슴깊이 염두해두자.

– 투데이 편집부

기고

정묘호란과 강화

이경수

강화유수부 이방청

한양 도성 서북쪽 안현(지금 서울 무악재). 피와 살이 튀는 살벌한 전투! 도성을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 쉬 승부를 예단할 수 없는 격전. 때는 1624년(인조 2) 2월 11일. 드디어 결판이 났다. 도성을 지키려던 이가 졌다. '도성을 지키려던 이'는 누구인가?

이괄입니다. 평안도 영변에서 반란을 일으켜 남쪽으로 쳐 내려와 한양 도성까지 장악했던 이괄입니다. 인조는 반란군에게 궁궐을 내주고 저 멀리 충청도 공주로 달아났습니다. 기세등등했던 반란군은 장만이 지휘하는 관군에게 진압됩니다.

이괄의 난이 진압되고 3년 뒤, 1627년(인조 5)에 정묘호란이 터져요. 후금의 조선 침공입니다. 조선의 방어선이 거듭 뚫렸고 인조 조정은 강화로 피란했습니다. 후금군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것은 조선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괄의 반란입니다.

이괄은 후금군의 침략에 대비해서 조선 최정예군 1만 명 정도를 이끌고 영변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유능한 지휘관들도 거의 영변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군에게 거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란군을 진압하던 관군도 상당수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군사력이 꺾였습니다. 반란군의 일부는 후금으로 달아났다가 정묘호란 때 후금군의 길잡이가 되어 조선으로 옵니다.

그래도 외침을 막을 최소한의 병력은 있지 않았나?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언제 후금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비상 상황이지만, 군사 훈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괄의 반란으로 식겁했던 조정은 역모에 대한 감시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공안정국'이 조성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장수들이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훈련하려고 하면, '저놈이 반란하려고 군사를 움직이나?' 의심받아야 했습니다. '정권 안보'를 위해 '국가 안보'를 무너트리고 있던 겁니다.

남이흥은 평안도 안주성에서 여러 차례 후금군을 격퇴하면서 적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만, 결국에는 성을 빼앗기고 자결합니다. 그때 남이흥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조정에서 내가 마음대로 군사를 훈련하고 기를 수 없게 했는데, 강한 적을 대적하게 되었으니 죽는 것은 내 직책이나, 다만 그것이 한이로다."

후금군이 조선 영토로 짓쳐들어온 것은 1627년(인조 5) 1월 13일. 인조가 강화에 들어온 것은 1월 29일입니다. 그 며칠 전에 인조는 강화부성 안에 유배돼 있던 광해군을 교동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좁은 성안에 자기가 폐위시킨 광해군이랑 같이 있기가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전쟁 초반, 뜻밖에 후금군이 먼저 화친을 요구해 옵니다. 명과 맞서고 있던 후금은 조선과 장기전을 치를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후금군이 강화도를 공격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반대하는 신하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인조 조정은 후금과 대화에 나섭니다. 후금의 사신이 강화를 드나들었습니다. 연미정 등에서 양국의 교섭이 진행됐습니다. 물론 뭍에서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고요.

후금은 화친 조건으로 크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①조선은 명나라와 절교하라!

②후금이 형이 되고 조선이 아우가 되는 형제관계를 맺자!

조선은 명나라 섬기는 일만큼은 절대 그만둘 수 없다며 버팁니다. 후금은 이런저런 협박을 가하며 조선을 압박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조선 편이었지요. 후금이 물러서면서 양국은 화친조약을 맺게 됩니다. 후금은 조선과 명의 관계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금이 형 나라가 되고 조선이 아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과 후금 서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후금의 요구에 따라 양국 간에 맹세 의식을 치르기로 합니다. 1627년(인조 5) 3월 3일, 드디어 조선과 후금은 맹약을 통해 화친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 맺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연미정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미정은 후금 사신을 맞이하고 접대하고 또 교섭하던 곳이지 조약 체결 장소는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지금의 고려궁지 자리쯤에 있었을 강화도호부와 그 주변에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맹약을 통해 최종

강화유수부 동헌

인조왕릉 장릉(경기 파주)

조약을 맺는 1627년(인조 5) 3월 3일의 실록 기록을 봅니다.

이날 밤 상이 대청에 나가 향을 피우고 하늘에 고하는 예를 몸소 행하였다. … 좌부승지 이명한이 맹세문을 읽었다. … 예를 마치고 상은 환궁하고 … 오윤겸·김류·이귀 … 등이 유해(후금 사신)와 함께 서단(誓壇)에 이르렀다. 호인들이 소와 말을 잡아 혈골(血骨)을 그릇에 담았다. 이행원이 맹세문을 낭독하였다. … 남목태(후금 사신) 등도 맹세하기를, … 하였다. 맹세하는 절차를 마치자, … 접대하는 재신들이 유해를 성 밖에서 전송하였다.

이날 맹약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셈입니다. 1부에는 인조가 강화도호부 대청에서 향만 올리고 행궁으로 돌아갔습니다. 2부는 양국 대표들이 서단으로 이동해서 소와 말을 잡고 서로 맹세문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연려실기술》에 따르면 맹세의 단, 서단(誓壇)은 서문밖[江都西門外]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묘호란이 끝났습니다. 육지 백성 처지는 참혹했으나, 강화 조정은 무탈했습니다. 1627년(인조 5) 1월 13일에 시작된 전쟁이 3월 3일에 끝난 셈이니, 전쟁 기간은 50일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인조가 강화를 떠난 것은 화친조약 체결하고 한 달도 더 지난 4월 10일입니다. 후금군이 모두 물러갈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조정이 강화에 머무는 동안 강화 주민들 형편은 어땠을까요. 후금군 침공 지역에 살던 백성들만큼은 아니지만, 꽤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조정 신하들만 강화로 온 것이 아닙니다. 대규모 군사들이 강화로 들어왔고 신하들의 가족 등 피란민이 아주 많이 왔습니다.

강화 주민들은 군막 설치 등 각종 노역에 동원됐습니다. 너무 고되어서 집 버리고 멀리 달아나 버린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란 온 양반집의 노비와 군인들이 빈집을 헐어 목재를 땔감으로 쓰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을 겁니다.

민심을 달래야 했습니다. 인조는 신하들의 요청을 수용해서 강화 주민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빚도 탕감해줍니다. 그리고 도호부성 밖으로 나가 강화 주민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고충을 듣고 위로했습니다. 아울러 양반들을 위한 위안책도 펼치니, 바로 과거 시행입니다.

1627년(인조 5) 2월 17일 강화도 조정. 특별 과거를 시행하자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임금을 호위해 온 외지 유생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주자는 예조의 건의가 있었으나 인조는 이렇게 지시합니다. "호종한 유생은 응시하도록 허락하지 말고 통진·교동 등지의 고을 사람들은 응시하도록 허락하라."

강화 본섬과 교동도 그리고 통진 주민만 응시할 수 있는 특별 과거를 베풀라고 했습니다.(지금의 김포시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통진읍, 양촌읍 지역이 조선시대 통진입니다.) 이에 따라 강화에서 과거가 열린 것은 화친조약 체결 이후인 3월 11일입니다. 이때 최종 급제자 4명 가운데 정유성(1596~1664)과 윤계(1603~1636)가 있습니다.

정유성과 윤계는 황치경(1554~1627)의 외손자입니다. 호조참의, 공조참의, 전라감사 등을 지낸 황치경은 삼포왜란(1510)을 진압한 황형의 후손으로 당시 강화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황치경은 사위 정근이 사망하자 어린 정유성을 강화 집에 데려다 키우고 가르쳤습니다. 정유성은 나중에 우의정까지 지내게 됩니다. 정유성의 손자가 바로 조선 양명학 즉 강화학을 일으킨 하곡 정제두입니다.

황치경은 또 사위 윤현갑이 사망하자 딸과 외손자들을 강화 집에 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윤계는 동생 윤집과 함께 강화 외가에서 컸습니다. 윤계는 병자호란 때 지방 수령으로 있다가 청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윤계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이러했습니다.

오랑캐(청군)가 붙잡아서 무릎을 꿇으라고 협박하자 공(윤계)이 꾸짖으면서 "목을 자를 수는 있어도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였다. 또 회유하여 데리고 가려고 하자 다시 꾸짖어 말하기를 "죽어도 너희들을 따르지 않겠다. 빨리 나를 죽여라."라고 하였다. 오랑캐가 더욱 화가 나서 병장기로 마구 내리쳐서 몸에 온전한 곳이 없었다. 공이 죽음에 임해서도 입으로 꾸짖기를 그치지 않자 오랑캐가 다시 뺨을 도려내고 혀를 잘랐다.

홍익한·오달제와 함께 삼학사로 불리는 윤집은 청나라로 끌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윤계와 윤집 형제는 강화 충렬사에 모셔졌습니다.

한편, 환궁한 뒤인 1627년(인조 5) 5월 11일에 인조가 심열을 강화유수로 삼습니다. 강화에 있던 4월 2일에 비변사에서 강화에 유수부를 설치하고 심열을 유수로 임명하자고 건의했었습니다. 그때 인조는 환도 후에 시행하자고 대답했습니다. 그 일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화도호부는 강화유수부로 불리게 됩니다.

후금에게 정묘호란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절반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애초 그들의 중요 목적은 조선과 명의 관계를 끊는 데 있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오게 될 겁니다. 정묘호란 끝나고 대략 10년 뒤,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다시 옵니다. 병자호란(1636)입니다.

연미정

중견배우 김진태, 강화군 홍보대사 위촉

강화군 홍보대사 위촉식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5일 탤런트 김진태 씨를 강화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위촉패를 수여받은 김진태 씨는 1971년 데뷔해 태조 왕건, 불멸의 이순신 등 여러 사극 작품에 출연하며 대중적 호평을 받아온 배우다.

앞으로는 홍보대사로서 강화군의 관광명소와 지역축제 및 특산물 등을 홍보하며,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강화군을 알리는 데 앞장서게 된다.

이날 김진태 씨는 "강화도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다가 지난 2021년 길상면에 전입한 이후 홍보대사가 되니 더욱 뜻깊다."면서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강화군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유천호 군수는 "김진태 씨를 홍보대사로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강화군의 관광명소와 우수한 농산물 등 다양한 매력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이웃돕기 성금 5백만 원 기탁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지사장 이수근)가 이웃돕기 성금 5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이수근 지사장은 "다가오는 한가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풍요로운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유천호 강화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을 실천하신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 성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해든뮤지움 박춘순 관장 고향사랑기부제 통해 300만 원 기부

10년간 미술관 운영해 온 강화에 기부할 수 있어 뜻깊어…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

해든뮤지움 박춘순 관장이 강화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해든뮤지움은 2013년 길상면 장흥리에 개관했으며, 강화의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적 건축물이 어우러진 미술관의 공간적 특성, 문화예술 전문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복합문화시설이다.

약 10년간 강화군에서 미술관을 운영해 온 박춘순 관장은 "마음의 고향인 강화군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의 세액 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강화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앞장서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기부금은 강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화군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한 경우,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강화섬쌀, 순무김치, 홍삼제품, 약쑥제품, 한우, 막걸리, 고구마빵, 속노랑고구마, 소창제품, 화문석 및 소품, 화개정원 입장권 등이 있다.

일교차 심한 가을, 건강을 지키는 상식

여름이 점차 헤매어 가을로 변화함에 따라 일교차는 더욱 심해집니다. 하루 동안의 기온 변화가 크게 느껴지는 가을,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가지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을의 변화하는 일기와 관련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 다양한 옷차림으로 일교차에 대비하기

가장 뚜렷한 가을의 특징 중 하나는 하루 동안의 기온 변화입니다. 아침은 서늘하고, 낮은 온도가 상승하며, 저녁에는 찬 바람이 불며 추워집니다. 이 변화에 맞추어 옷차림을 선택하는 것이 편안함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옷 층층이 차려입기

옷을 겹겹이 입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먼저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가진 기능성 내의를 입고 시작합니다. 그 위에 니트와 같은 보온성 있는 중간 층을 추가해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람과 비를 막아주는 방풍 및 방수 소재의 겉옷을 착용해 서늘한 바람과 갑작스러운 비로부터 보호합니다.

– 따뜻한 액세서리

액세서리도 체온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스카프, 보온성이 뛰어난 모자, 장갑 또는 미트, 그리고 보온성이 좋은 양말은 가을 패션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액세서리는 목, 머리, 손가락 등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 신발 선택

신발 역시 종종 간과되지만, 가을의 기온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온성과 편안함을 모두 제공하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비가 종종 내리는 가을 날씨를 염두해 방수 신발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면역 체계 강화하기

가을은 감기와 독감이 유발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기온 변화와 실내에서의 활동 증가로 인해 바이러스 전파의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균형 잡힌 영양섭취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은 면역 건강을 위해 필수입니다. 과일, 잎채소, 견과류 등 면역 기능을 지원하는 음식을 식단에 포함시키세요. 이러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은 계절적인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적절한 수분 섭취

날씨가 쌀쌀해져 수분 섭취를 잊기 쉽지만, 가을은 여름처럼 수분 섭취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항상 적절한 수분 섭취를 유지함으로써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기온 변화와 실내 난방으로 인한 건조한 피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충분한 수면

질적으로 좋은 수면은 면역 건강의 기반이 됩니다. 가을은 낮시간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된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며, 수면 전에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을철 알레르기 관리하기

1년 중 가을은 일교차와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성 비염·천식·결막염과 아토피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생기는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의 증상을 감기와 착각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비염을 방치하게 되면 만성 비염으로 이어지거나 만성 부비동염이나 비충혈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서는 최소한의 환기 후 창문을 닫고 실내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외출 후에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미리 의사와 상담하여 알레르기에 대한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가을철 이상적인 활동

가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 야외 활동

가을의 온화한 기온은 야외 활동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산책, 등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해 기분을 상승시키고,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키며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운동 루틴 전환

여름의 더위에서 가을의 서늘한 날씨로 운동 루틴을 전환하는 것은 신중한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온난한 시간에 실외 운동을 하거나 요가와 같은 실내 운동을 시도하고, 꾸준한 운동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연 속에서의 명상

가을의 자연은 명상과 휴식 기술을 연습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공원, 숲에서 시간을 보내 명상,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가을의 평온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의 변화와 함께, 일기 변화에 대처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상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복장 선택, 면역 체계 강화, 알레르기 관리, 가을철 이상적인 활동을 통해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며 가을의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듣 고
더 뛰 고
더 가까이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강화군의회가 되겠습니다.

강화군의회
GANGHWA COUNTRY COUNCIL

today ganghwa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